# 목 차


## 글로벌 AI 동향 ····· 1

해외
- 美 “정부기관 연말까지 AI 안전장치 의무 도입하라” ····· 1
- 유럽의회, 세계 첫 'AI법' 통과…AI로 생체 정보 수집 금지 ····· 2
- 연이은 소송전에…오픈AI, 1년새 변호사 24명 영입 ····· 3
- 오픈AI·메타, '추론·계획' 가능한 AI 조만간 공개 ····· 4
- 인공지능 뒤처진 애플… 중국 판매 아이폰에 中 AI 탑재 추진 ····· 5

정책
- 금융위, 금융사 AI 도입에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모색 ····· 6
- 중소벤처기업부, LG전자 등과 온디바이스 AI 창업기업 육성한다 ···· 7
- "AI로 원전 이상징후 포착하고 메타버스서 대책회의 연다" ····· 8
- “국내 보험산업, 인공지능 시장 성장 주목·선제 대응 필요해” ····· 9

기업
- GS25 “편의점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AI 도입” ····· 10

## 🗁 글로벌 AI 동향

# 美 “정부기관 연말까지 AI 안전장치 의무 도입하라”

■ 미국 백악관, 인공지능(AI)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기관들에 구체적인 안전 장치 마련을 의무화

–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기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떠오르는 가운데, 연방 기관이 활용하는 AI 기술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

– 백악관 예산관리국(OMB), 연방 정부기관들이 AI를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검증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새 정부 규칙을 발표

〈AI 자료사진(출처: 게티미지뱅크)〉

■ 2024년 12월까지 미국 내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함

– AI 도구들에는 공항 얼굴인식, 전력망 관리, 대출, 보험, 의료, 날씨 등 각종 분야가 포함

– 각 정부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숙련된 ‘최고 AI 담당관(Chief AI Officer)’을 채용해야 하며,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 분야 및 내용,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의무

–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은 AI 사용이 중단될 예정

■ 백악관,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“기관 수장이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했을 시 기관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안전 혹은 권리상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AI 사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“고 설명

*출처 : 세계일보, 美 “정부기관 연말까지 AI 안전장치 의무 도입하라” (2024.3.29.)*

## 유럽의회, 세계 첫 'AI법' 통과...AI로 생체 정보 수집 금지

■ 유럽에서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생체 정보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,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데이터화해 점수를 매기는 '사회적 점수 평가(소셜스코어링)'가 금지될 예정

–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경쟁이 치열해지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 첫 'AI 규제법(AI Act)'을 통과

–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, "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선구적인 법안"이라고 평가

■ 의료·교육·고용·금융 등 필수적인 공공·민간 서비스와 법 집행, 이주 및 국경 관리 등 국가의 주요 시스템과 관련한 AI는 '고위험 등급'으로 분류될 예정

■ 사람과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(AGI)를 개발하는 기업에 '투명성 의무'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이번 규제의 주목할 부분

– 이들 업체는 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고 AI를 학습시키는 데 이용한 콘텐트를 명시해야 하며, 사이버 공격, '유해한 선입견' 전파 등 EU가 위험하다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

〈 유럽의회 회의에서 유럽연합(EU) 의원들이 인공지능(AI) 법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 〉

■ AI 규제법은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

–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,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계획

– 기업이 규정을 어길 경우 세계 매출액의 1.5%에서 최대 7%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계획

*출처 : 중앙일보, 유럽의회, 세계 첫 'AI법' 통과...AI로 생체 정보 수집 금지 (2024.3.14.)*

## 연이은 소송전에...오픈AI, 1년새 변호사 24명 영입

■ 생성형 인공지능(AI) '챗GPT' 개발사인 오픈AI가 2023년 3월부터 1년간 총 24명의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변호사를 대폭 늘리는 상황

– 또한, 오픈AI는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대비해 30만 달러 연봉을 내걸고 반독점 소송 전문 변호사를 구하고 있는 상황

■ 이처럼 오픈AI가 법무팀을 강화하는 것은 챗GPT 열풍과 함께 뒤따르고 있는 각종 소송과 규제 당국의 조사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

–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과 소설가 마이클 샤본, 타–네히시 코츠 등은 지난해 챗GPT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(MS)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

– 마거릿 애트우드 등 미국 작가 수천 명도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

– 오픈AI는 이 회사 공동 설립자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(CEO)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, 머스크는 오픈AI가 회사 설립 초기의 비영리 임무와 함께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

■ 오픈AI는 추가로 유럽 등 규제당국의 반독점 조사도 직면한 상황

–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, "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확인 중"이라고 밝힘

– 영국 경쟁시장청(CMA), "MS와 오픈AI의 투자·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를 수집 중"이라고 발표

*출처 : 매경신문, 연이은 소송전에...오픈AI, 1년새 변호사 24명 영입 (2024.4.10.)*

# 오픈AI·메타, '추론·계획' 가능한 AI 조만간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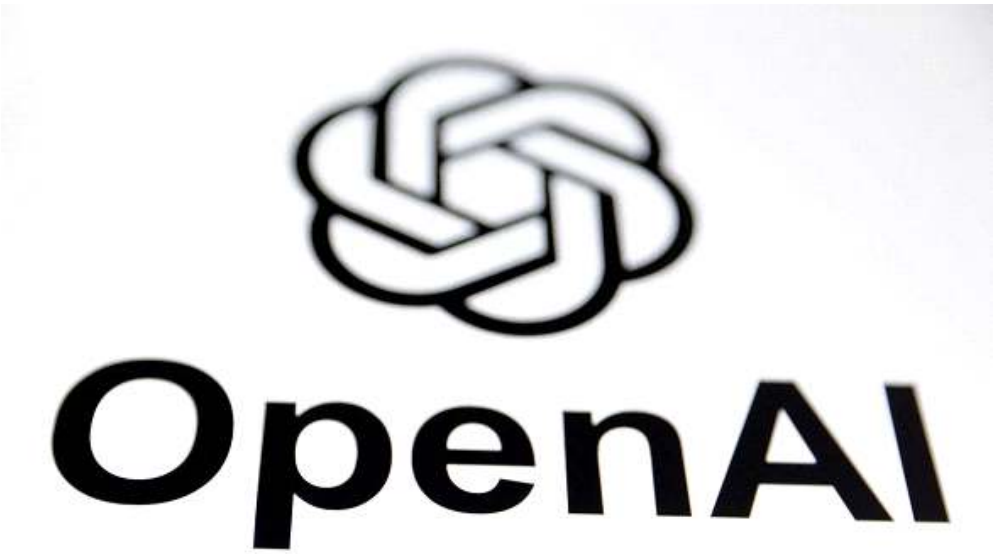
■ 오픈AI·메타, 추론 및 계획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(AI)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

– 파이낸셜타임스(FT), 4월 9일(현지시간) 오픈AI와 메타가 추론·계획 능력을 갖춘 차세대 거대언어모델(LLM)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

– 앞서 메타는 오픈소스 방식 AI인 '라마(LLAMA)'에 추론과 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한 'LLAMA3'를 수주일 안에 구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, 오픈AI도 GPT-5로 예상되는 차기 AI 모델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시사

– 이들 기업이 개발한 추론·계획 능력을 포함한 AI 기술은 인간을 대신하는 범용 AI(AGI) 개발에 가까워졌음을 의미

〈 Open AI 로고 (출처: 연합뉴스) 〉




■ 조엘 피노 메타 AI리서치 부문 부사장, 영국 런던에서 열린 메타AI데이 행사에서 “AI 모델들이 그저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론하고, 계획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”고 발언

–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(COO), “차세대 GPT는 추론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보일 것”이라며 “좀더 정교한 방식으로 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를 보기 시작할 것”이라고 언급

*출처 : 전자신문, 오픈AI·메타, '추론·계획' 가능한 AI 조만간 공개 (2024.4.10.)*

## 인공지능 뒤처진 애플… 중국 판매 아이폰에 中 AI 탑재 추진

■ 미국 애플,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사 기기에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(AI)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

– 미 월스트리트저널(WSJ), 애플이 중국에서 파는 아이폰·아이패드 등에 중국 바이두의 AI 모델 '어니봇'을 탑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

– 실제 애플이 이 업체들의 AI를 탑재한다면 모든 주요 기능을 자체 개발하거나 인수·합병을 통해 확보해온 애플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

〈 중국 상하이 매장을 찾은 팀쿡 〉

■ 애플은 주요 빅테크 중 AI 부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데, 이렇게 된 이유로 애플의 '폐쇄적 생태계'가 개방성이 중요한 AI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

– AI 기술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공유·학습하며 발전하는 만큼 외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

– 애플은 자체적으로 AI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거대언어모델(LLM)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이폰에 탑재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

■ 테크 업계 관계자, "최근 미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까지 당하면서 애플의 이러한 '폐쇄적 생태계'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"고 언급

*출처 : 조선일보, 인공지능 뒤처진 애플… 중국 판매 아이폰에 中 AI 탑재 추진 (2024.3.25.)*

## 금융위, 금융사 AI 도입에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모색

■ 금융위원회, 금융업계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(AI) 등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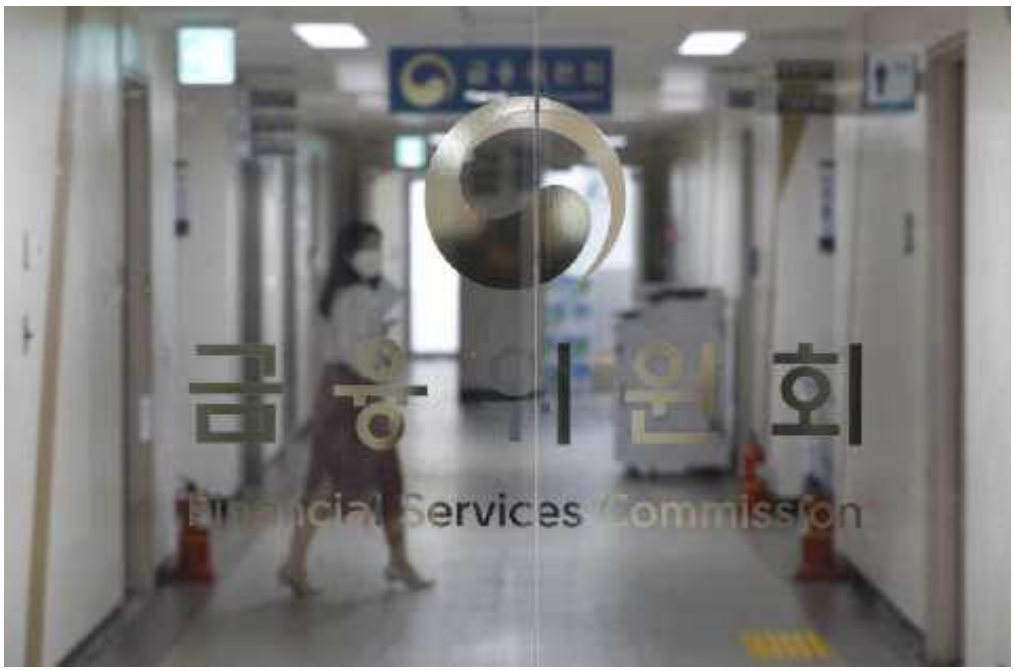
-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·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'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(TF) 1차 회의'를 개최

- 망분리 규제는 내부 전산 자원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으로,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2014년 말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

-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가 디지털 신기술이 채택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, 금융위는 TF를 통해 IT(정보기술) 개발인력이 원격근무가 불가한 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

■ 금융위,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함에 따라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와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

< 금융위원회 >




*출처 : 파이낸셜뉴스, '금융위, 금융사 AI 도입에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모색 (2024.4.12.)*

## 중소벤처기업부, LG전자 등과 온디바이스 AI 창업기업 육성한다

■ 중소벤처기업부, LG전자·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과 공동으로 최근 글로벌 AI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'온디바이스 AI 초격차 챌린지'를 공모

– 이번 공모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추진해 오던 '팹리스 초격차 공모'에 이어, 신규로 AI 분야에서도 유망 AI 스타트업과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

– 이번 공모는 생성형·온디바이스 AI 개발 역량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을 모집하며, 공모 분야는 △온디바이스AI PC 분야, △온디바이스 AI 응용 분야, △자유 제안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공모 희망 스타트업은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

–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스타트업은 LG전자(디바이스), 인텔(칩셋), 마이크로소프트(SW)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부터 기술검증(PoC) 등 기술지원과 중기부로부터 협업 비용을 지원받게 됨

■ 중소벤처기업부, 이번 공모를 계기로 유망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AI스타트업협회와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는 'AI 스타트업–대기업 상생협의회'를 구성하고,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

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"인공지능은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"이라며

– "우리나라의 우수한 AI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집중 지원하겠다"고 덧붙임

*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, LG전자 등과 손잡고 자체가동(온디바이스) 인공지능(AI) 창업기업(스타트업) 육성한다. (2024.3.21.)*

## "AI로 원전 이상징후 포착하고 메타버스서 대책회의 연다"

■ 2022년 운영을 시작한 통합예측진단(AIMD)센터는 인공지능(AI)을 이용해 전국 26개 원전의 이상징후를 사전 진단하고 모니터링(Monitoring)하는 업무를 수행 중

- 한수원 디지털플랜트그룹 예송해 부장, "AI를 통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해당 원전의 설비 담당자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 사고를 예방한다"고 설명

- 해당 설비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 임무이며, 10년 이상 쌓인 데이터에서 특징들을 추출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설비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음

- 한수원 중앙연구원 김대용 계전연구소장, "AI를 이용함으로써 사람이 인지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으며, 대규모 설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어 인력 감축 효과도 있다"고 설명

〈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내에 있는 통합예측진단 센터 모습(출처: 한국수력원자력) 〉

■ 한수원, 사전예측진단 시스템과 더불어 전 세계 원전 최초로 디지털 트윈(digital twin)도 개발 중

-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 공간에 실제 원전과 똑같은 원전을 형상화한 것이고, 디지털트윈을 이용하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

- 한수원은 3D와 가상현실(VR)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트윈에 아바타와 메타버스(metaverse) 시스템도 구현할 예정

*출처 : 아시아경제, "AI로 원전 이상징후 포착하고 메타버스서 대책회의 연다" (2024.4.15.)*

## “국내 보험산업, 인공지능 시장 성장 주목·선제 대응 필요해”

■ 보험연구원 손재희 소비자·디지털연구실장, 4월 8일 보험산업 내 인공지능(AI) 활용 국내·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이슈들을 점검하기 위해 ‘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’을 발표

■ (생성형 AI의 장점) 생성형 AI는 기존 AI와 차별화된 기술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 활용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며, 이를 통해 △업무 생산성 향상 △리스크 및 시장 분석모델 고도화 △소비자 경험 제고 등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

– 또한 AI를 활용한 사내 업무절차 자동화, 임직원 업무수행 보조역할 등 효율성을 증진하고, 고객과의 소통에도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대응을 제시해 더 나은 보험소비 경험을 제공 가능하다고 언급

■ (생성형 AI의 활용 범위) 국내·외 보험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활용범위를 넓히려 시도 중이며

– AI 활용 관련 다양한 위험의 보장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관련시장의 성장에 주목하고 선제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

■ (생성형 AI의 역기능) 생성형 AI 규제 강화로 보험산업 내 AI의 직접적인 활용 범위가 제약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며, AI 활용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AI 모델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 및 위험평가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

■ (생성형 AI로 인한 피해 방지) 보험산업은 향후 AI 관련 규제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

–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규제 도입은 필수이지만,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AI 관련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

*출처 : 이뉴스투데이, “국내 보험산업, 인공지능 시장 성장 주목·선제 대응 필요해” (2024.4.8.)*

## GS25 “편의점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AI 도입”

■ GS리테일, 자사 편의점 GS25가 편의점 공사 현장에 ‘스마트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

– 5월 순차 도입될 스마트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은 CCTV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접목해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분석, 관리자에게 알람을 송출하는 기능을 탑재

– CCTV가 공사 현장 내에서 화재나 응급 호출, 장시간 쓰러짐, 안전모 미착용, 외부침입 등을 감지하면 클라우드 AI 플랫폼을 통해 GS25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비상 알림을 보내고 이를 본사 안전 관리 책임자가 확인 및 조치하는 방식을 적용

〈 스마트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 (출처: gs리테일) 〉

■ 그간 편의점 공사 안전 관리는 개별 현장마다 시공사와 감독원의 역량이 달랐기 때문에 현장별로 안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음

– GS25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△통합 안전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△프로세스 간소화 △협력사와 긴밀한 시공 현황 공유 △안전 관리 수준 고도화 등을 확립할 방침

■ 허우진 GS리테일 시설지원팀장, “AI 기술을 활용해 GS25 개별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,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면서

– “GS25는 앞으로도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객과 경영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”라고 밝힘

*출처 : 이데일리, GS25 “편의점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AI 도입” (2024.4.15.)*